

## 참고서적

1. 황 창 기 1984 “최근 성경해석학의 동향” 이근삼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고신대 출판부
- 1986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고려신학보 제12집,  
고려신학대학원 편집실
- 1987 “마 7:13-27의 구조적 특징” 성경과신학 제5권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2. 김 근 수 1988 “마태복음 1장연구” 성경연구와 신학 총신대 출판부
3. BRUCE F. F 1982 “Geneology of Jesus Christ” in (J. D Douglas et  
al eds) New Bible Dictionary 2nd edition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4. DAVIES W. D 1964 The Sett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FENTON J. C 1963 Saint Matthew Penguin Books
6. FRANCE R. T 1985 Matthew: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y  
Inter-Varsity Press.
7. GREEN H. B 1975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Oxford  
University Press.
8. GUNDRY R. H 1982 Matthew William B Erdmans Publishing  
Company.
9. HENDRIKSEN W. 1973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Baker Book  
House.
10. KOZE, P. P. A 1977 “The Structure of Matthew One” in The Structure  
of Matthew 1-13 Neotestamentica 11 (1977)
11. MACHEN J. G. 1930 The Virgin Birth of Christ Baker Book House
12. RIDDERBOS, H. N. 1987 Matthew (Translated from Dutch into English  
by R. Togtman) Regency Reference Library  
Zondervan Publishing House.

## 다니엘 9장의 ‘70 이레’에 대한 재해석

한 정 건\*

### I. 서 론

최근 교계에서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일고있는 종말론에는 두개의 큰 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주장이고, 또 하나는 계약신학자들이 보는 견해이다.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에 관한 성경본문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계약신학자들은 영적인 사건으로 볼려는 경향이 있다. 또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 적인 교훈들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반면에, 계약신학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종말을 중요시 하여 예수님의 초림에 강조점을 돌리고 한다.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본문들을 역사적으로 볼려는 의도가 너무 심하여 성경의 예언들을 지나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에 연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즉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신상의 계시에서, 돌이 발가락 부분을 찢다는 본문을 역사에 적용시켜, 발가락은 열이니까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는 열개의 국가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것은 E. C.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짓는다. 반면에 계약신학자들은 역사적인 해석이 아닌 영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마지막에 징조로써 주어지는 ‘전쟁’ ‘기근’ 등의 사건들과 또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들을 마치 실재 일어날 사건이 아닌 양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양대견해를 볼 때에 각자가 가진 장점도 있는 것 같고, 또 각자가 가진 단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선입관을 먼저 가지고 성경 본문들을 해석하는 것 보다, 순수한 눈으로 성경을 먼저 해석 한 후에 종말론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니엘서 9장은 종말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의 성격이 규정되어 진다. 즉 종말론의 초점이 재림으로 모아지는 지,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모아지는 지; 그리고 예언들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이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역

\* 신학과 조교수, 구약학 전공

사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모두 세대주의자라고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서 9장은 신구약 전체를 통털어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본문이 차지하는 종말론에 대한 위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본문의 의미들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다니엘 9장 전체의 문맥을 먼저 살핀 후에 핵심이 되는 구절인 24-27절까지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9장 전체의 주제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4-27절에 주어지는 예언을 한 묶음으로 살피고, 또한 각 구절들의 의미들도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우리들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와 흐름도 살펴서 전체 속에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원리를 적용시켜,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 이 본문과 같은 곳을 찾아 그들과도 조명해 봄으로써 이 어려운 구절들의 해석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II. '70 이레' 예언의 배경(단9 : 1-24)

### 1. 예언의 도입과 다니엘 9장의 주제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70년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칠 것에 대한 예언(렘 25 : 11-12; 29 : 10)을 회상하면서 시작된다(단 9 : 2).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sup>1)</sup> 70년 포로기간이 다 차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 기도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볼 때 회개의 기도인 것 같으나, 그러나 죄용서함 너머 "예루살렘의 황무함" (2절하)에 대한 간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니엘서 9장의 관심이며 또한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중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자에게 치욕을 받음이니이다" (16절).

1) 9 : 1절에 쓰여진 "메데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대하여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혹자는 이 다리오는 페르샤의 세번째 왕인 다리오 1세 (522-486 B. C.) 혹은 다리오 2세 (423-404)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 신학자들은 페르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으로 보든지, 혹은 고레스의 메데 이름이 다리오로 불리워진 것으로 추정한다. 후자의 것이 타당한 이유는 이스라엘 70년 포로의 끝과 관련된 것은 고레스 원년이며, 또한 본문에서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란 말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란 말은 후에 복자자가 임의로 삽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Baldwin, 1978 : 23-29를 보라).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취시옵소서" (17절하).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城)을 보옵소서" (18절).

다니엘은 기도를 이렇게 맺는다 :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9절).

결국 다니엘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유는 '주의 성'(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스라엘)을 위해서이다. 지금 거룩한 성은 황폐되어 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7절). 죄를 범한 결과가 이러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예언되어졌다(11절; 레 26 : 31-33; 신 28 : 64).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며,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이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0절),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할 명령을 받았으며, 다니엘의 기도예에 즉각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브리엘의 "70 이레"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의 기도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며, 이것은 다니엘의 요청, 즉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9장 전체가 주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이다.

### 2. 다니엘 9 : 24에 나타나는 '70 이레' 예언의 주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쁨 부음을 받으리라" (9 : 24).

다니엘의 기도예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예언이 9 : 24-27까지 기록되어 있다. 24절은 '70 이레'에 대한 예언의 서론으로서, 이 예언의 총 요약과 담고 있다. 우리는 먼저 24절에서 앞으로 전개될 전체적인 예언의 주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E. J. Young (1980 : 197-201, 간하배(1970 : 191-97), 박윤선(1980 : 490) 등은 본문은 메시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 본문은 안티옥커스 4세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은 천년왕국 등의 그 어느 것보다도 상관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은 그 근거를 '허물이 마치며', '죄가 사해지는 것', '영원한 의가 들어나는 것', 그리고 '기름부음 받은자(메시아)', 등에 대한 말들에서 찾는다. 간하배는 이상의 항목들이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며, 메시아가 이 예언의 종결점이라고 말한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계된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에 메시아의 구속사업이 완성됨을 이 예언이 목적한다고 주장한다 (간하배, 1970 : 197).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볼 때에 이 예언이 '죄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에 힘들다. 다니엘의 '죄용서'에 대한 기도는 현재 고난에 처해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간하배는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는 포로생활이 70년 만에 마칠 것에 대해 예언하는데 그쳤지만, 다니엘은 이 포로생활이 끝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구원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생각한다(간하배, 1970 : 185).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에서는 그러한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니엘은 단순히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에 대한 회복을 생각하고는, 이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회복의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70 이레의 기간이 정해졌음을 알린다. 따라서 이 70 이레의 기간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지, 메시아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것이 그 근본 목적인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가브리엘의 대답에서 (24절)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의 역할로써 이루어질 것임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 예언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임이 명심해야 한다.

24절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로 시작하고 있다. "네 백성"은 원초적으로 '다니엘의 백성' 즉 '이스라엘'임이 분명하다. 또 "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 확실하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다니엘은 현재 포로로 흩어져 고생하고 있는 자기 백성과 '주의 거룩한 산' 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특히 16, 17절을 보라). 다시 말하면 24절의 예언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물론 Youn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메시아적인 사역의 결과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Young, 1980 : 197). 그러나 분명한 것은 24절의 예언이 다니엘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그의 회복에 대한 기도의 응답인 것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70 이레'예언의 주제도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이다.

### 3. '70 이레'의 의미

'70 이레'에서의 '이레'를 한편에서는 실제의 숫자로 간주하기도 하며, 또 다른 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만약 실제의 숫자로 본다면 '七日'일 수가 있으며, 또 한 '七年'일 수도 있다. '七日'로 본다면 70의 7곱은 490일 밖에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기간으로써 합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레'는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칼빈, 헝스턴버그 등의 보수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간하배는 이에 반(反)하여 '70 이레'를 실년수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이 예언은 예레미야의 심판에 관한 예언과 대조 시켜 주어진 것으로써, 연대기적인 대조가 아니라 영적인 대조라는 것이다 (1980 : 188). 그는 '이레'가 앞에 나와 있음을 중요시 한다. '7×70'은 완전한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수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신적인 사역을 완성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1980 : 189).

우리는 결론을 맺기 전에 먼저 '70 이레'라는 숫자가 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70'이라는 숫자는 '70년' 포로기간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다니엘은 이 70년 포로기간이 끝나야 하는 시기에 (메데왕 다리오 원년, 혹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단 9 : 1). 우리는 '70년'의 포로기간을 당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기서는 이 기간은 '안식년'의 기간으로 인식한다 :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대하 36 : 21-22).

70년 포로기간이 안식년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아이로니컬 하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은 쉼과 풍요의 기간이어야 한다(출 23 : 10, 11). 그러나 역대기서는 반대로 그들에게 고난과 학대의 기간을 안식년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 기록된 안식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이해하여 자기들의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레위기서 25장에서부터 안식일, 안식년, 회년에 대한 율법이 주어진다. 특히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서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희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레 25 : 2-5).

이 법도를 행하고 여호와와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며, 풍성한 산물을 거둘 것이다 (레 25 : 18-22; 26 : 3-13).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그들의 파종이 헛되며(기근), 질병이 그들을 칠 것이고, 그들이 대적들에게 패하며, 성읍은 황폐하고 그들은 열방중에 흩어질 것이다 (26 : 14-

## 33). 이어서 레위기서는 이렇게 진술한다 :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레 26 : 34-35).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법도와 그외의 율법들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동안 땅은 학대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하여 억지로 땅이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이때에 땅은 쉼을 얻을 것이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레 26 : 38-39).

레위기서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여호와와의 규례를 멸시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고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나 (26 : 43),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그 땅을 권고하겠다고 하신다 (26 : 42).

“그러나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26 : 44-45).

역대기서를 기록할 당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가면서 이 레위기서에 제시된 약속을 기억한 것이 틀림없다.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이 레위기의 안식에 대한 사상을 잘 이해했으며, 그들은 70년 포로기간을 레위기서가 말한대로 안식의 기간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안식의 기간이 끝나고 포로에서부터 구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기억하는 것이다.

이 포로에서 귀환과 옛 토지를 다시 찾는 것은 레위기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회년의 의미와 결코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회년은 안식년을 일곱번 계수한다 (레 25 : 8). 일곱 안식년이 지난 다음해, 즉 제50년째는 나팔을 전국에서 불면서 회년을 알린다 :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송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

게로 돌아갈지며...”(레 25 : 9-10).

역대기서를 기록하였던 때인 고레스 원년은 바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해이며, 다니엘이 기억한 '70년'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안식년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다니엘 9 : 24의 '70 이레'는 곧 바로 '안식기간×7'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바로 그때가 안식년의 끝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안식의 기간이 일곱번 더 있어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다니엘의 청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곱 안식년' 뒤에 있을 회년과 대비(對比)하여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 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 '70년'은 안식년으로 간주되었지만, 그러나 이 안식년은 땅이 황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기간은 7번이 더 지나는 동안 계속될 것이며, 그 후에 참 회복이 이루어 질 것이다.

'70 이레'를 히브리어 원어가 의미하는대로 번역한다면 '70의 일곱번'으로 하는 것이 좋다 (간하배, 1980 : 187). '일곱'이 '70'보다 먼저 쓰여짐으로써 '일곱번'에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간하배는 이 '일곱번'이라는 말을 '7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70 이레'는 년을 기본단위로 하지 않는다고 변론한다. 사실 '7'에 년이라는 기본 단위를 붙일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일곱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7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구체적인 년수이며, 24절의 '70 이레'는 '70년의 일곱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구체적인 년수로 볼 수 있다.

간하배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활동기간을 나타내기 위함임으로 실제의 어떤 기간보다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간하배, 1980 : 189-190). 사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문자에만 집착하여, '490년'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산출해 내는 성급함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70'과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어떠한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기간이 3구분 되고 있으며, 이 세 구분된 기간의 시작과 끝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또한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만 보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70 이레'의 예언은 성도들의 고난과 회복이 주제이다. 9장은 다니엘이 70년 포로의 기간이 이제 끝날 때임을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난의 끝을 위해서 '70 이레'가 정해졌음을 알려준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본문이 메시아의 '속죄'사역이 그 목적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본문은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26절),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이 그 목적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70 이레'는 '70년의 일곱번'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이것은 실 년수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Ⅲ. '7 이레'와 '62 이레'에 대한 해석(단 9 : 25-26)

“너는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는 칠주간이 흐를 것이다. 그 뒤에 육십이 주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겠지만, 그 동안에 성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육십이 주간이 지난 다음...” (공동번역에서)

우리는 이 어려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성경을 너무 신학적인 편견에 잡혀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제안되어 온 여러가지 해석들을 살피면서 그 타당성을 논한 후에 가장 합당한 해석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 1. '69 이레'를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계산

이 견해는 한 이레를 7년으로 보고, 앞의 '일곱 이레'와 '62 이레'를 합하여 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Hengstenberg에서 E. J. Young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Young은 특히 '일곱 이레'와 '62 이레'를 나누는 것은 문맥에 맞지않다고 단언한다 (1980 : 205). 그는 '영이났다는'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하신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나, 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선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538 BC	483 (69×7)	55 BC
고레스 원년	'69 이레'	
(스 1 : 1-3)		

이 설은 “영이 날 때”란 말을 고레스 왕의 선포로 해석하여 매우 합리적인 것 같으나, 고레스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 성을 중건하라는 내용이 없기에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69 이레'의 끝이 메시아 탄생(혹은 사역)과 관계가 되어야 하나, '69 이레'가 55 BC에 끝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연대와 일치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Young은 이 기간을 고레스 원년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까지로 보며, 그 숫자에는 상징성의 의미가 크므로 정확한 연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함으로써 수치가 맞지않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한다(1980 : 206). Young이 숫자로 계산을 하면서도 또 그것은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이 계산은 '70 이레'를 세 구분하지 않고 두 구분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박윤선은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일곱 이레'와 '62 이레'를 구분하여 고레스 왕에서부터 성전중건까지를 '일곱 이레(49년)', 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의 중건에서 예수님의 초림까지를 '62 이레'로 해석한다. 이 이론은 Young의 논리보다 진일보한 제안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고레스 원년에서 성전건축이 완성된 다리오 2년(약

520년 BC)까지는 18년의 간격밖에 되지 않으며, 느헤미야의 성전축(약 445년)까지는 너무 긴 기간이 된다. 따라서 이 계산도 완전하지 못한 것 같다.

#### 2. '69 이레'를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시작하는 계산법

Sir Robert Anderson(1915)이 계산해 낸 이후 최근의 복음주의 학자들로부터 제일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이라 할 수 있다. Anderson은 '69 이레'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때부터 메시아의 죽음까지로 보며, 이 기간을 느헤미야가 귀환한 아닥사스다 제20년(445 BC)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32 AD까지로 환산해 낸다. 정상적으로 445 BC에서 '69 이레'인 483년을 더하면 39 AD가 되어 너무 늦은 날자가 나온다. 그러나 Anderson은 계시록과 창세기에서 사용된 특수한 년도계산법을 사용했고, 이를 '예언적 월력'(prophetic year)이라고 불렀다. 이 방법에서 그는 일년이 365 1/4일인 태양력으로 환산하는 대신 360일을 일년으로 계산했다. 그 근거로는 계시록 11 : 2에서 42달이 3절에서 1,260일과 동일시 되고 있으며, 이는 한달에 30일로 계산된 것이다(Anderson, 1915 : 72). 또한 창세기 노아홍수 사건에서도 이런 계산법이 나타나는데,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했으며, 7월17일에 방주가 땅에 닿았다. 창세기 7 : 24과 8 : 3에는 이 기간을 105일로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달에 30일로 계산된 것이다 (McClanin, 1940 : 21 참조).

Anderson은 '69 이레'를 한 기간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445 BC 3월 15일	476년 (30일을 한달로 계산한 69×7)	32 AD 4월 6
아닥사스다 20년	69 이레	예수님의
(느 2 : 1-8)		
		예루살렘입성

Anderson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고향으로 가도 좋다고 허락한 것이 니산월 첫째 날로 잡고 (서력으로 환산하면 3월 15일), 그로부터 30일을 한달로 69 이레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32 AD 4월 6일이 된다고 한다.

이 계산법은 한때 큰 호응을 얻었으나 역시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느헤미야 2장에서 니산월만 기록하지 첫날로는 말하지 않는다. 만약 아닥사스다왕의 조서가 첫날에서 일주일만 늦어도 '69 이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끝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과연 다니엘이 '예언적 월력'을 사용했는가에 대하여 매우 의심스럽다. 고고학과 탈무드 등에서 나타나는 유대인 월력은 달의 주기를 따라 일년에 354일로 계산하고 있으나, 2년에 한번씩 윤달을 두어 긴 세월을 본다면 태양력의 365 1/4일과 꼭 맞추어져 있다. 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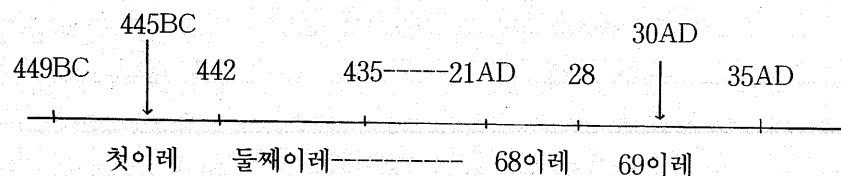
인의 습관에서 긴 기간을 말 할 때에 그 연수는 태양력의 년수와 항상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기원년은 실제 예수님의 탄생과 3-5년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판명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년도는 32 AD가 아니라 28~29 AD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up>1)</sup> 따라서 Anderson의 이론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 3. '69 이레'를 느헤미야로 시작하는 안식년 주기에 따른 계산법

Robert C. Newman (1982)은 '69 이레'를 느헤미야의 귀환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식년 주기로 계산해가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옛 유대인의 안식년에 대한 중요한 자료는 마카바상 6:49, 53-54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카바서는 그 때가 안식년이었기에 시리아 군을 대항한 전쟁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기술한다. 같은 6장의 20절에는 그 때가 Seleucid 왕조의 150년으로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해는 163/2 BC (혹은 162/1 BC)로 계산되어진다.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년 전통을 거슬러 계산해가면 164/3이 안식년이 된다. (*Encyclopedia Judaica*, 14:585). 만약 마카비서에 나타난 안식년이 163/2 BC라면,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대인의 안식년과는 단지 1년의 차이가 날 뿐이다.

Newman은 445 BC로 시작하여 '69 이레'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계산에 의하면 69번째 이레 중간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된다. 따라서 문제는 "69 이레 후"라는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Newman은 69번째의 이레가 이미 시작했기에 "69 이레 후"라는 말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서 주님이 부활한 것을 장사한지 "3일 후"라고 마태복음 27:63과 마가복음 8:31에 말하고 있으며, 이는 "제3일에" (마 20:19; 막 9:31)라는 말과 같이 취급되어진다는 것이다 (Newman, 1982:7).

1)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3:1-2은 연대산출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Hendrickson은 헤롯대왕이 4BC에 죽었기에 적어도 5 BC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누가복음 3:1의 세례요한의 사역시작한 해인 대베로 가이사 위에 있는지 열 다섯째 해는 26 AD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Hendrickson, 1978:197-99).

만약 본문이 '69 이레'를 두 구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 이 계산법은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7 이레'와 '62 이레'를 구분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69 이레 후'라고 다니엘이 말할 때에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3일 후"라고 사용한 것과 같은 뜻으로 다니엘도 생각했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는다.

### 4. '69 이레'를 에스라의 귀환으로부터 시작하는 해석

가끔 '69 이레'를 에스라가 귀환한 아닥사스다 제7년(458 BC)부터 계산하여 26 AD에 예수님이 실제 공사역을 시작할 무렵까지 잡기도 한다.

458 BC	483 (69×7)	26 AD
아닥사스다 7년 (스 7:6-7, 11-13)	'69 이레'	예수님의 공사역 시작
		예수님의 죽음

이 이론은 '69 이레'의 끝은 잘 맞으나 시작이 왜 에스라의 귀환에서부터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답할 길이 없다. '69 이레'의 시작을 성전의 중건에 관한 포고에 관계된 고레스 왕 원년이던지, 예루살렘 중건과 관계된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보는 견해보다 에스라의 귀환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 에스라는 성의 건축과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종교개혁에만 머물렀다. 따라서 이 설의 지지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 5. 마지막 '한 이레'를 안티옥커스 4세에 맞춘 계산법

이 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으로서, '70 이레'의 예언은 안티옥커스 4세 때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첫번 '7 이레'의 시작은 '70년 포로' 이후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때, 즉 586 BC에서 시작하여 고레스 원년인 538 BC까지이며, '62 이레'는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마카비 시대의 대제사장 Onias 3세가 죽은 때까지이고, 마지막 한 이레는 안티옥커스 4세의 활동시대로 본다 (Montgomery, 1979:378-389).

587BC	49년	538	171 BC	163 BC
예레미야예언 (렘 32 : 1이하)	'7이레'	고레스 원년	'62이레'	오니아스 3세죽음
				안티옥커스 4세죽음

이 계산법을 볼 때에 '7 이레'의 기간은 정확하게 맞으나 고레스 원년에서 오니아스 3세의 죽음까지의 기간은 '62 이레'보다 훨씬 짧은 것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니엘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이며, 그 기록의 시기는 마카비 시대의 것으로 간주하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다니엘 2장과 7장은 헬라왕국을 넘어 로마제국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으며, 7장에서 한 뿔이 안티옥커스 4세가 아닌 네번째 왕국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가 분명하므로 다니엘의 모든 기록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만 볼려고 하는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 수 없다. 따라서 9 : 26의 메시야도 오니아스 3세라고 볼 수가 없다.

## 6. '70 이레'를 세구분하는 새로운 계산법

앞의 여러 계산법들에 만족함을 얻지 못한 우리는 새로운 확실한 계산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먼저 이 어려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게 본문을 읽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을 위해 성경 다른 부분에서의 도움도 얻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본문은 '70 이레'를 세구분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정해진 기간에 맞추기 위해 흔히 본문이 말하는 구분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앞의 두 기간을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KJV (the King James Version)과 NASB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다. 한글 개역판도 여기에 속한다. 이 성경들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야가 올 때까지'를 '일곱 이레'와 '62 이레'로 묶고 있으며, 그때에 곤고한 중에 성이 중건될 것으로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70 이레'를 몇 구분으로 나누는가 문제는 본문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문은 '7 이레', '62 이레' 그리고 '한이레'로 삼분(三分)하고 있다. 영어성경 RSV (the Revised Standard Version)와 한글 공동번역은 '일곱 이레'와 '62 이레'를 구분하고 있다. '일곱 이레'의 기간은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이며, '62 이레'는 곤고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는 기간으로 분리한다. 맛소라 사본은 '일곱 이레'에서 큰 씬표(Athnah)가 있으며, 이에 따르면 후자의 번역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본문이 세구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성경을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간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부음 받은자"가 올때까지

이가 : "...너희가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계신 때부터 기름부어 세운 영도자가 오기까지 칠주간이 흐를 것이다" (단 9 : 25, 공동번역). 25절의 "영이 날 때부터" (from the word went forth; 공동번역 : "말씀이 계신 때부터")의 히브리어 **גַּזְזָ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졌다'는 것이 어느 왕의 말의 선포보다도 합당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Young, 1980 : 205; 간하배, 1970 : 198). 다니엘이 9장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시켜 볼 때에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레미야서에는 여러번 포로귀환과 유대땅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29 : 10-14에 시드기야 시대에 주어진 예언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날짜는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음). 32장은 시드기야 제10년에 주어진 예언으로 가장 확실하게 포로귀환과 유대땅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다 :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발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렘 32 : 44).

만약 '일곱 이레'의 시작을 예루살렘과 유대땅 전역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시드기야 제10년으로 보면 일곱 이레의 49년(7×7)은 고레스왕 원년에 마치게 된다. 다니엘서 본문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에서 약 40번 나오나, 대부분의 영어번역 성경들이 본문과 이사야 45 : 1(고레스 왕에 대해)에서만 '메시야'로 번역한다. 이 이사야 41장에서 48장까지 고레스 왕이 주요역할자로 등장하면서 선지자의 관심은 모은다. 이 이사야 41 : 2-3에서 고레스 왕은 동방에서부터 오는 의인이며 위대한 정복자로 묘사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레스는 41 : 25에 나타나며, 44 : 28에는 고레스의 이름이 직접 나오면서 "나의 목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로 극찬하며,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중건되며,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으로 예언한다. 45 : 1에는 그를 '기름받은 자', 즉 '메시야'로 일컫는다. 45 : 4에는 "내가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한다. 그 외에도 46 : 11; 48 : 14-15등에도 고레스의 역할은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하나님이 고레스를 자신의 뜻이 있어 직접 세우심; (2)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가 세계를 정복하게 됨; (3)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이다; (4)하나님은 고레스로 '기름부음 받은자' 즉 '메시야'로 부른다(MacRae, 1977 : 23-30 참조).

문제는 과연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예레미야서를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또한 이사야에게 영감으로 고레스를 '메시야'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도 그와같은 예언을 하게 하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또 단 1 : 1~6은 이사야 39 : 6-7의 예언의 성취로써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두번째 기간인 '62 이레'는 성을 중건하던 때이고, 이 기간의 끝은 확실하게 꼬집지 않지

만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따라서 두번째 기간의 시작과 끝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다고 하겠다. 성의 재건은 느헤미야 시대의 것과 마카바 시대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445 BC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을 재건했으며, 433년경 페르샤로 돌아갔다가, 약 430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역하였다.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재임했는지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Elephantine 문서들의 도움으로 추정할 수 있다. 느헤미야 12:22, 23에는 요하난이 레위자손의 족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Elephantine 문서에서는 408년에 요하난이 대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Elephantine 문서에서 407년에 Bagoas가 유다총독으로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총독재위기간은 408년까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Bright, 1972: 402). 따라서 '69 이레'의 시작은 445년에서 408년까지 넓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445 BC에서 시작한다면 둘째기간의 끝은 약 BC 1년이 될 것이고, 408년으로 부터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공사역의 시작시기인 약 AD 27년이 될 것이다.

마지막 '한 이레'는 한 왕이 언약을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정한 종말"로써 끝을 맺는다. 도표는 다음과 같다.

587BC	49년	538BC	408BC	434년	27AD	30AD	7년
<hr/>							
예레미야 (예언(렘32장))	'7이레'	고레스 원년	느헤미야 사역	'62 이레'	예수님	십자가	'한이레' 공사역

이 이론의 단점은 '7 이레'와 '62 이레'와 마지막 '한이레'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우느냐 일 것이다. 만약 '70 이레'가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면 490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70 이레'를 연속적으로 보기는 불가능하며, 각 기간마다 간격이 당연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62 이레'의 시작을 408년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408년은 가능성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며, 그보다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문은 이 둘째기간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2 이레'의 끝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루살렘 멸망(70 AD) 그 이전이어야 한다.

이 이론의 장점은 본문이 '70 이레'를 세구분하고 있는데 부합한다는 것이다. 본문은 분명히 '7 이레'와 '62 이레'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만약 이 두 구간에 아무런 특징도 없고 불필요한 것이라면 본문이 왜 구태여 구분을 주고 있겠는가?

본문이 세 기간으로 나누는 것은 분명히 각 기간마다 주어지는 어떤 특징을 말할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다니엘서 9장의 주제를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 주제에 맞추어 우리는 세 기간들의 특징을 살펴야 할 것이다. 첫번째 기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겪는 이스라엘의 고난이며, 두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고난의 기간이

며, 세번째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당하는 고난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고난의 끝에는 메시아적인 사역으로 인한 '회복'이 예상되어 진다. 그러나 그러한 회복은 일시적인 혹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회복은 마지막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첫번째 고난 이후 고레스에 의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 예상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곧 이어서 다시 성이 중건되고 해자(적군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 바깥쪽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채우는 것)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다. 학개와 스가랴서에서도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에 완전한 것이 이를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스가랴의 첫번째 환상에서 (슥 1:8-17) 땅을 두루 다니고 온 천사가 여호와와 사자에게 "온 땅이 평온하고 정온하더라"고 보고한다. 이를 다른 말로하면 온 땅이 '안식을 즐기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호와와 사자가 부르짖는다: "70년이 되었는데도 어찌하여 예루살렘과 유다성읍을 궁핍히 여기지 아니하나이까?" 70년의 안식 기간은 온 땅이 평온을 누리는 대신 이스라엘에게는 고난의 기간이다. 그러나 70년이 이미 지난 스가랴의 때에도 아직 그 안식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스가랴서는 지적하고 있다.

두번째 기간은 성이 재건되고 해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아서 전쟁의 기간임을 알 수 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난은 마카바 시대에 그 극치를 이루었다. 헬라와 로마국으로 인한 전쟁의 고난뒤에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스라엘은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위로" (눅 2:25),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궁핍히 여기시고 기억하심" (1:54), "백성을 속량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심" (1:68, 71), "예루살렘의 구속" (2:38)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니엘 본문은 '62 이레' 이후 메시아의 죽음과 또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말함으로써 또 다른 암흑의 시대가 예상됨을 암시한다. 결국 메시아의 초림이 '70 이레' 후에 예상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속의 때가 아님을 말한다. 완전한 이스라엘의 구속은 다음에 남은 '한 이레'의 고난 기간이 지난 후 완성될 것이다.

'한 이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예상되어진다. 이 기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며, 미운 물건이 세워지며, 성이 황폐케 될 것이다. 이 고난의 기간은 정한 때까지 계속되어 종말이 이를 것이다 (단 9:27). 이로서 '70 이레'는 끝날 것이고, 백성들의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것이며, 거룩한 성이 회복될 것이다(24절).



## IV '한 이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폭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 지리라 하였느니라”(단 9:27)

이 구절은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70 이레' 예언의クライ막스를 이루는 부분이다. '한 이레'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먼저 '62 이레'와 '한 이레' 사이에 있을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62 이레' 후에 두개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끊어지다”는 말은 레위기 7:20에 '사형'에 사용된 말이다. 따라서 자연적인 죽음 보다는 강압적으로 죽임을 당함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Young, 1980: 206). 둘째로 한 왕에 의하여 성과 성전이 훼파당할 것이다. 이것은 70 AD에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박윤선, 1980: 496; 간하배, 1970: 206-208). '62 이레'가 지난 후에 이처럼 중요한 사건들이 언급되고 난 다음 '한 이레'가 시작된다. 따라서 '62 이레'와 '한 이레' 사이에는 간격(gap)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62 이레'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고난은 계속될 것임이 예상되어진다. 그리고 27절에 '한 이레'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 한 이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이 기간동안 일어나는 사건의 주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이 '한 이레'는 언제 시작될 것이며, 얼마만한 기간이 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 1. 사건의 주체

## (1) 본문에서의 해석

'한 이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주체는 삼인칭 남성 단수이다. “그가”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요하다. 문맥상으로 볼 때에 주어인 “그”는 세가지 가능성을 가진다고 생각되어 진다. 하나는 앞에 나온 메시아 이든지, 아니면 앞절에서 성과 성존을 훼파한 “한 왕”이 던지, 또 가능한 것은 히브리어의 성격상 독립 인칭대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동사에 묻혀있는 삼인칭의 주어는 뚜렷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보다 막연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 J. Young, 간하배, 박윤선은 “그”를 메시아로 본다. 그리고 27절의 모든 사건은 메시아

적인 사역으로 해석한다.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는 언약을 맺는 데에 사용되는 관용적인 용어인 *קָבַץ*가 아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언약을 확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하배, 1970: 211). 그리고 언약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신 것이라고 한다. “미운 물건”은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뒤에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거행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가증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박윤선, 1967: 501; 간하배, 1970: 215).

그러나 위의 논리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먼저 “그”를 메시아로 본다면, 앞절에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가 또다시 등장하여 사역을 하는가? 간하배는 27절이 시간적으로 26절 이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70 이레'전체의 본문은 메시아가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면 9장 처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본문은 '거룩한 성'의 회복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싱거운 구성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본문의 문맥으로 살피면, “그” 앞에 나타나는 “한 왕”을 대변하는 자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앞의 것들과 관계없는 어떤 제3자의 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니엘 11:35에도 “이 왕이”라고 시작하지만 그는 앞에 나타나는 안티옥커스 4세가 아니라, 그와 거의 같은 성격의 소유자임이 분명하다 (뒤에 논할 것임). 따라서 9:27의 “그”도 앞에 나타난 “한 왕”과 동등한 인물이라기 보다는, 그를 대변하는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한 이레'동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유화정책을 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 이레'절반에 그는 변심하여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성을 황폐케 할 것이다. “날개를 의지하고 선다”는 것은 세력을 근거로 하여 우상을 세운다는 것이다. '날개'는 다니엘 7:4, 6절에서 힘을 상징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힘으로 파괴하는 자에게 정한 종말이 이를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내릴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선 박윤선 등의 해석과는 서로 상반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본다. 만약 어떤 구절이 애매하여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부분을 바로 해석하기 위하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개혁주의적 성경해석 원리를 적용하여 어느 것이 바른 해석인지를 확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27절의 어귀가 다니엘서 다른 곳에 세번 나타나며, 또한 마태복음 24:15에서도 이 구절이 인용된다. 따라서 같은 어귀가 나타나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적자를 의미하는지를 살피으로써 본문의 참 뜻을 확증하는데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이다.

## (2) 다니엘 8:9-14

다니엘 8장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이다. 먼저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데-바사제국을 가리킨다 (8:20). 그 이후 나타나는 수염소는 헬라제국이며, 두 눈 사이의 현저한 뿔은 그 첫째 왕으로서 (21절)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는 것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22절). 그 중의 한 나라(시리아 왕국)에서 한 작은 뿔이 돌아나는데, 이는 Antiochus 4세 (Antiochus Epiphanes)임이 틀림없다 (박윤선, 1985: 147f). 그의 힘이 심히 커져서 영화로운 땅, 즉 유다 땅에 들어올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헬라의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 (3) 다니엘 11:30-35

다니엘 10-12장은 하나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1:2절 이하에는 페르시아에서부터 헬라나라에 이르는 역사가 예언적으로 주어진다. 이 역사의クライ막스는 역시 8장에서 취급된 안티옥커스 4세의 행적이다. 안티옥커스 4세의 행적은 11:21로 부터 시작된다. 그는 비천한 사람으로서 케홀로 왕권을 차지하고, 거짓으로 많은 군사들을 모아 대군을 이끌고 남방왕 즉 이집트를 칠 것이다. 첫번째 침입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 이집트 왕을 죽이지 못하고 일단 후퇴하였다 (11:25-28). 다시 제이차 침입을 감행하여 이집트의 많은 지역을 휩쓸고 알렉산드리아를 위협하였을 때에 로마의 군대가 개입하여 굴욕적으로 퇴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30). 그는 귀환하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성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학살하였으며,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11:31). 이 사건들은 마카비상. 하에 세밀히 기록되고 있다. 그가 성전에 세운 ‘미운물건’은 헬라신인 쥬피터 신상을 말하며, 안티옥커스는 이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로써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유다 전역에 대박해가 일어났으며, 마카비의 무리들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스스로 정결케하며 연단하여 드디어 헬라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재탈환한다.

## (4) 다니엘 12:10-13

다니엘 11:36이하는 “이 왕이”라고 시작하고 있다. 분맥상으로 본다면 “이 왕”은 안티옥커스 4세인 것 같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안티옥커스 4세가 아니다. 안티옥커스 4세는 자기 조상의 신을 섬겼으나, ‘이 왕’은 “열조의 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

할 것이다” (37-38절). 또한 안티옥커스 4세는 이집트를 완전점령하지 못하였고, 리비아와 구스(이디오피아)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왕’은 열국과 이집트 까지도 완전히 점령을 할 것이고,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그의 종이가 된다 (42-43절). 따라서 ‘이 왕’은 안티옥커스 4세가 아니며, 그와 거의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왕은 여태까지 이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교부 제롬(1978: 124f) 이후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이 왕’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본다. 그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12:1). 이러한 환란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12:7). 그리고 독특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11).

결론적으로, 이상의 세 구절들은 안티옥커스 4세 혹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가리키며,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행동이다. 다니엘서에서 안티옥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박윤선, 1985: 153). 다니엘 7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한 작은 뿔로 묘사되었다.<sup>1)</sup> 8장은 7장과 매우 비슷하게 엮여 있다. 7장의 적그리스도의 묘사인 작은 뿔이 8장에서도 거의 같이 묘사되고 있으며, 이때에 8장은 역사적 사건이 안티옥커스 4세를 가리킨다. 7장과 8장을 비교할 때에 안티옥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11장과 12장도 마찬가지로 도입되고 있다. 11장은 역사적인 안티옥커스 4세를 묘사하고 있고, 12장에서는 그와 거의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적그리스도를 다시 말한다. 여기에서도 안티옥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7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도입된 이후, 8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을 등장시켜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으며, 10장에서 시작하여 12장으로 연결되는 예언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표상 혹은 적그리스도가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들어있는 9장의 내용도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더 분명한 것은 9장의 마지막 부분인 27절에서도 다른 장들과서와 꼭 같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가장 특징적인 절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만약 같은 말들이 나타나는 다른 세곳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면, 9장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 마태복음 24:15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서의 구절을 인용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 24:15). 우리는 여기에서도 이 인용된 것이 예수님 자신의 사역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소행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살핍으로써 다니엘 9장의 뜻을 확증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한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1)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작은 뿔은 E. J. Young, 간하배, 박윤선도 모두 적그리스도로 본다.

예수님에게 그때가 언제이며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고 묻는다. 이때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하여 묻는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의 ‘주의 임하심’은 오순절의 성령강림을 뜻하며, ‘세상 끝’은 구약세대가 끝남을 가리킨다고 한다 (한정전, 1989 : 96ff 참조). 그리고 24장에 나타나는 예언들은 70 AD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의 임하심’으로 사용된 용어인 ‘parousia’가 신약성경에 예수님에게 사용될 때마다 모두 재림을 가리키며, 마태복음 24장 내에서도 3절 외에 27절, 37절, 39절 등도 모두 오순절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의 때를 뜻한다. 따라서 3절의 ‘parousia’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29-31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분명하다: “그날 환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강림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인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또한 32절에서 시작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37절 이하의 노아의 때에 대한 교훈; 43절 이하의 도적의 때에 대한 비유; 45절 이하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 25 : 1-13의 열처녀 비유; 25 : 14-30의 달란트 비유; 31-46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등도 모두 오순절 혹은 AD 70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들이 분명하다.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도들이 환란이다. 이 환란이 15절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난다(29절 이하). 16절 이하의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급히 도망할 것을 권고한다. “지붕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쟁을을 가질러 뒤로 돌이지 말라”고 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그것을 보면 빨리 도망을 가야 할 표적인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서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다니엘 9장에서 E. J. Young, 간하배, 박윤선 등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제사를 폐하셨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과연 자기가 죽은 후에도 계속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급히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보고는 급하게 피했는가? 우리는 제자들이 이것을 예표로 삼아 급하게 피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사도행전을 볼 때에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으며(행 3장), 바울은 서원한 몇 사람들에게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성전의식에 참여하고 있었다(행 21 : 17-26). 따라서 결코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의 예언을 박윤선 등이 주장하는 의미로 인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것은 적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반대자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것을 보거든 이제 성도들의 환란이 시작될 것임으로 빨리 도망하라는 말씀이 분명하다(한정전, 1989 참조할 것).

위와같이 신약성경을 살펴봐도 다니엘 9 : 27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분명하다.

## 2. “한 이레의 절반”

다니엘 9 : 27을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본다면, 그로인한 성도들의 고난의 기간이 ‘한 이레’가 될 것이다. 이 기간이 언제 시작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62 이레’ 직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62 이레’ 이후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운데 끼어있다. 따라서 마지막 ‘62 이레’와 ‘한 이레’ 사이에는 간격(gap)이 있음이 필연적이라고 하겠다.

적그리스도로 인한 성도들의 환란 기간이 ‘한 이레’이다. 만약 ‘70 이레’를 실년수로 본다면, ‘한 이레’도 7년이 될 것이다. 간하배는 ‘70 이레’는 실년수로 볼 수 없으며, 상징적인 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이레’도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70 이레’는 바벨론 70년 포로로부터 출발한 계산이며, 따라서 실년수로 볼 수 있다. 또한 Young, 간하배, 박윤선도 ‘7 이레’와 ‘62 이레’를 합한 ‘69 이레’를 고레스 원년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사역 바로 앞까지로 계산을 한다. 만약 앞의 숫자들이 실년수로 간주될 수 있으면, 마지막 것도 실년수로 봄이 가능한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 적그리스도로 인한 ‘7년 대환란’설을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 한 곳의 애매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한 학설의 근거를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70년 대환란’에 대한 성경 다른 곳의 증거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경 다른 어느 곳에도 7년 대환란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이레’의 절반에 해당하는 삼년반(혹은 그와 유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7년보다는 ‘한 이레의 절반’에 쏠아야 하겠다. 다니엘 본문에서 한 이레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변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절반의 기간동안의 활동과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로 묘사된 적그리스도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단 7 : 25). 다니엘 8장에서는 작은 뿔로 묘사된 안티옥커스 4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고 백성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2,300주야(晝夜), 즉 1,150일 말한다.<sup>2)</sup> 이 기간은 마카비에서 증언하는 성전이 더럽혀진 때부터 회복된 때까지와 거의 일치한다. 이 날짜는 연으로 계산하면 약 삼년반에 해당한다. 다니엘 12장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환란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할 것을 말하며 (12 : 7), 이를 구체적으로 1,290일과 1,335일로 다시 주고 있다. 이 두가지 숫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논쟁은 생략하기로 하며, 이것도 대략 삼년 반보다 조금 많은 기간으로 간주될 수

2) 히브리 인들은 밤과 낮을 흔히 분리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다(창1 : 5). 창세기 7 : 12에도 비가 40주야 내렸다고 말하며, 영어번역 성경에는 forty days and forty nights로 번역하고 있다(Baldwin, 1978 : 158 참조).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삼년반의 기간이 여러번 나타난다. 계시록 11:2은 거룩한 성이 마흔두달(삼년 반) 동안 짓밟힐 것이고, 두 증인이 1,260일(삼년 반) 동안 예언할 것이다. 계시록 12:6은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1,260일(삼년 반) 동안 핍박할 것이다. 12:14에는 이것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말한다. 따라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삼년 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시록 13:5은 짐승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을 “마흔 두달”(삼년 반)로 증언한다. 이 짐승은 용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으며(13:2), 온 백성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한다.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보며,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삼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이 ‘삼년 반’ 혹은 그와 유사한 기간들이 말해지고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니엘 9:27절의 ‘한 이레의 절반’은 ‘삼년 반’ 혹은 적어도 그와 유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7년 대환란과 공중휴거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을 공식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도들은 이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며,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여 성도들은 휴거당하여 올라 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은 E. C.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1992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때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그해가 될 것이고 단언한다.

공중휴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성경적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17에 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이 7년 대환란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지상에서 환란의 기간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거한다는 증거는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4:13이하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에게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꾸지람이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죽은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그들은 오히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보다 앞서서 주님을 맞이할 것임을 증언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로써 강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보다 앞서서 주님을 맞이할 것임을 증언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로써 강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우리 남은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여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기 보다는 마지막 재림임이 분명하다. 논리적으로도 한번 상상해 보라. 예수님이 천사들과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고, 땅 위의 사망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 하는데,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과 성도들이 함께 휴거당하여 올라가는데 세상은 다시 평온하며,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제부터 시작되어 그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자기를 섬기도록하는 사건들이 그 이후에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때 휴거당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것이지, 환란을 피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접하고는 공중에서 계속 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주님은 바로 성도들이 영접을 받으며 땅위로 내려오셔서 심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종말에 대한 사건들을 논하면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땅위에는 부활이 있는 큰 변화와 사건들이 있는 증거는 아무 곳에도 없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다니엘서의 여러 곳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여러 곳에서도 적그리스도 이전에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모든 성경본문들은 한결같이 성도들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고있는 “휴거”에 큰 비중과 집중적인 관심을 쏟고있는 종말론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며,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 V. 결 론

다니엘 9:24-27은 말세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포로의 70년 기간이 마쳐감을 인식하여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죄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시작한다. 다니엘의 기도 목적은 사죄 그자체가 아니라, 사죄의 결과로 얻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다. 따라서 9장의 주제는 이스라엘(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과 회복이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써 하나님은 ‘70년’이 끝난 지금이 바로 그 회복의 때가 아니라 ‘70 이레’의 기간이 정해졌음을 알린다. 이 ‘70 이레’는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을 염두에 둔 계산임이 틀림없다. 이스라엘 70년 포로기간은 레위기에서 예언된 땅의 안식기간이며, 이 안식기간의 일곱번 뒤에 희년과 같은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70 이레’는 세구분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의 세구분을 무시하고 처음 두 기간들을 하나로 계산 하는 잘못을 범한다. 그러나 본문이 세구분을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 기간으로 나누어진 것은 각 기간마다 특징있는 고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첫번째인 ‘7 이레’ 동안에는 바벨론 포로의 고난이며, ‘62 이레’는 전쟁으로 인한 고난이며, 마지막 ‘한 이레’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이다. 각 고난 뒤에 회복의 희망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첫번째와 두번째의 기간 마지막에 있을 희망은 완전한 것이 못되며, 세번째의 고난 후에야 비로서 모든 고난이 끝을 맺으며, 완전한 회복이 예상된다.

‘한 이레’동안에 있을 중요한 사건 중에 “제사가 폐해지며 미운 물건이 서는”것은 다니엘이 네번에 걸쳐서 거론할 정도로 다니엘의 핵심적인 구절이다. 9장 외의 다른 곳에서 이 사



## 참 고 문 헌

전이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에게 사용되었다.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에 도입되어 8장에서 12장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설명되면서 위의 구절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9장의 구절도 분명히 적그리스도에게 사용된 것임이 틀림없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증명이 된다. 따라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이 모두 종말론에서 적그리스도가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특히 계시록 13장은 계시록의 크라이막스에 해당하며, 적그리스도의 삼년 반 동안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 이레'는 '62 이레'바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62 이레'이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고(그리스도의 죽음과 예루살렘 멸망), 그 이후에 '한 이레'가 시작된다. 따라서 두 기간 사이에 간격(gap)이 불가피하다. '70 이레'는 실년수인 바벨론 포로 '70년'을 근거로 하여 시작하였다. 그리고 앞의 두 기간은 실년수로써 흔히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마지막 '한 이레'도 실년수로 생각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 소위 일컬어지는 '7년 대환란'설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7년 대환란'보다 성경이 더 중요시 다루는 '이레의 절반'에 대하여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니엘서 여러 곳에서는 약 삼년 반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에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활동하는 상황들을 여러번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삼년반에 걸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하고 있다. 또한 마태복음 24:22은 환란의 날이 짧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다니엘 9장은 종말론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본문을 예수그리스도 초림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말론적인 성경구절들도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들 보다 이미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거나, 교회에서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반면 본문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종말론적인 해석을 주님이 재림할 임박한 시기에 있을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우리는 본문을 논하면서 다니엘 9:27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활동임을 증명했다. 따라서 종말론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사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반면 세대주의자들의 현실에 너무 쉽게 적용하는 잘못과, 그들이 제일 큰 이유로 삼는 '7년 대환란' 이전에 공중 휴거에 대한 이론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

Anderson, R.

1915(rep) *The Coming Prince*. London : James Nisbet/Grand Rapid : Kregel.

Baldwin, J. G.

1978 *Daniel*. (Tyndale OT Commentaries). Downers Groe : Inter Versity Press.

Braverman, J.

1978 *Jerom's Commentary on Daniel : A Study of Comparative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s of the Hebrew Bible (CBD Monograph Series 7)*. Washington, DC :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Hedrickson, W.

1973 *Matthew (NT Commentary)*. Edinburg :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8 *Luke (Nt Commentary)*. Edinburg : The Banner of Truth Trust.

McClain, A. J.

1960 (40) *Daniel's Prophecy of the Seventy Weeks*. Grand Rapid : Zondervan.

MacRae, A.

1977 *The Gospel of Isaiah*. Chicago : Moody.

Montgomery, J. A.

1979 (26) *The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f the Book of Daniel (ICC)*. Edinburg : T & T Clark.

Newman, R. c.

1982 *The Time of the Messiah* (출판되지 않은 소책자). Hatfield, Pa :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Russell, D. S.

1981 *Daniel (The Daily Study Bible Series)*. Philadelphia : Westminster/Edinburg : The Saint Andrew Press.

Ryrie, C. C.

1978 (76) *The Ryrie Study Bible* (with NASB). Chicago : Moody.

Young, E. J.

1980(rep) *The Prophecy of Daniel*. Grand Rapid : Eerdmans.

간하배

1970 *다니엘의 메시아 예언*. 서울 : 개혁주의 신행협회.